

IWC 인제니어 SL '정보' REF. 1832

제네바의 워치 디자이너 제랄드 젠타(Gérald Genta)는 1970년대, IWC 샤프하우젠의 인제니어에 혁신적인 시각적 정체성을 부여했습니다. 차별화된 디자인을 지닌 인제니어 SL(Ref. 1832)은 그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제품은 견고하면서도 우아한 스틸 스포츠 워치에 대한 제랄드 젠타의 비전을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1950년대는 변화와 도약의 시기였습니다. 급진적인 산업화의 결실인 첨단 도구의 발명은 가사노동의 부담을 덜어주었고 이는 기술 진보에 대한 무한한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IWC의 테크니컬 디렉터였던 알버트 펠라톤(Albert Pellaton)은 이 시기에 첫 자체제작 오토매틱 무브먼트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뛰어난 효율성을 자랑하는 이 와인딩 메커니즘은 로터의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메인 스프링을 와인딩하는 동력으로 활용했습니다.

이 극적인 시기에, IWC는 최초의 민간 항자성 손목시계인 인제니어를 출시했습니다. 이 타임피스는 엔지니어, 기술자, 화학자, 조종사 또는 의사와 같이 일상 업무에서 강한 자기장에 노출되는 직업군을 위해 특별히 개발되었습니다. 연철 내부 케이스는 자기장으로부터 무브먼트를 효과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이는 패러데이 케이지와 마찬가지로 원리로, 무브먼트 주변의 민감한 부품이 자기화되어 시계의 정확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방지합니다. 이 기술은 몇 년 앞서 출시된 파일럿 워치 마크 11을 위해 개발된 기술입니다.

최초의 인제니어 Ref. 666은 간결하고 둥근 케이스 디자인으로 1955년에 출시되었습니다. 1967년에 출시된 2세대 인제니어인 Ref. 866 역시 수수한 디자인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말, '새롭고 무게감 있는 인제니어 스틸 모델'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IWC 경영진들 사이에서 대두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IWC는 1969년 8월 1일, 해당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새로운 인제니어는 충격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며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그러나

타임피스의 기술적인 특징을 보다 강조할 수 있는 새로운 케이스에 대한 니즈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프로토타입은 1970년과 1971년에 걸친 테스트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충격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해 IWC 매뉴팩처의 엄격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IWC는 외부에서 디자이너를 물색했습니다. 제네바 출신의 제랄드 젠타는 당시 프리랜서 워치 디자이너였으며, IWC와도 이미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는 1967년, 샤프하우젠 매뉴팩처를 위해 스틸 크로노그래프를 고안했지만 해당 프로젝트는 세상에 공개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IWC는 제랄드 젠타에게 새로운 인제니어 디자인을 의뢰했고, 그는 1974년에 결과물을 완성했습니다. 그의 스케치는 일체형 스틸 브레이슬릿과 구조화된 다이얼을 지닌, 놀라운 타임피스를 담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계의 가장 중요한 디자인적 특징은 5개의 스크류가 있는 베젤이었습니다.

당시 스위스 시계 산업은 여러 측면에서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극동 지역의 저렴한 쿼츠 시계가 시장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보다 심각한 문제는 달러 환율이 폭락하는 동시에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주로 골드 시계로 구성되었던 IWC 컬렉션의 가격은 갑자기 3~5배까지도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마케팅 및 세일즈 매니저였던 하네스 팬틀리(Hannes Pantli)는 스테인리스 스틸 컬렉션을 크게 확장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다양한 럭셔리 스틸 스포츠 워치로 구성된, 일명 IWC의 'SL 컬렉션'을 전개했습니다.

제랄드 쟈타의 인제니어 SL(Ref. 1832)은 SL 컬렉션의 대표작이 되었으며, 1976년 당시 2천 스위스 프랑이라는 높은 가격으로 출시되었습니다. 이 타임피스는 40mm의 케이스 사이즈로 '점보'라는 별칭을 얻었습니다. 오토매틱 8541 칼리버는 고무 버퍼에 장착되어 충격 보호에 최적화되어 있었으며, 연철 내부 케이스는 최대 80,000A/m 자기장으로부터 무브먼트를 효과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이후 인제니어 SL은 스틸-골드와 골드 소재로도 출시되었습니다. 또한, IWC는 여러 가지 쿼츠 무브먼트 모델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혁신적인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은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평균 손목 사이즈에 비해 시계가 크고 무겁고 두꺼워서 착용감이 불편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고객들은 얇은 두께의 쿼츠 시계를 원했기 때문에 이 제품은 1976년에서 1983년까지 겨우 1천 개 남짓 판매되었습니다.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시계 수집가들이 '점보'의 진가를 알아보게 되었고, 오늘날까지 이 타임피스는 IWC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히스토리 피스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인제니어 SL이 제랄드 쟈타의 전성기였던 1970년대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닙니다. 1972년에서 1976년까지 그는 여러 스틸 스포츠 워치 모델을 고안하며 스위스 시계 산업에 완전히 새로운 제품군을 도입했습니다. 처음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의 시계가 고가에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5개의 나사 홈이 있는 스크류 베젤, 독특한 패턴의 다이얼 및 일체형 H-링크 브레이슬릿과 같은 차별화된 미적 요소를 갖춘 인제니어 SL은 제랄드 쟈타의 상징적인 디자인을 반영합니다. 이는 그의 가장 중요한 작품 중 하나이며 견고하면서도 우아한 스틸 스포츠 워치에 대한 그의 비전을 완벽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IWC 샤프하우젠

IWC 샤프하우젠은 스위스 북동쪽에 위치한 샤프하우젠에 기반을 둔 스위스 럭셔리 위치의 선구자로, 포르투기저부터 파일럿 위치 컬렉션에 이르는 넓은 스펙트럼의 컬렉션을 전개하며 엘레강스함은 물론 스포티함까지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1868년, 미국 출신의 엔지니어이자 위치메이커였던 플로렌타인 아리오스토 존스(Florentine Ariosto Jones)에 의해 설립된 IWC는 시계 제작 과정에 뛰어난 기술적 노하우, 훌륭한 장인 정신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최첨단의 기술을 접목한 시계를 선보입니다.

150년이 넘는 역사에 걸쳐 IWC는 위치메이킹과 컴플리케이션의 독보적인 위상을 차지했으며, 독창적인 크로노그래프와 캘린더로 특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티타늄과 세라믹을 처음으로 사용하며 소재 개발을 선도하고 정밀한 기술과 특별한 소재의 시계 케이스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럭셔리 시계 브랜드의 대표주자인 IWC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제작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투명성, 순환성, 책임의 철칙을 바탕으로 IWC는 세대에 걸쳐 전해질 수 있는 타임피스를 가장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생산하기 위해 제작 과정, 유통 과정, 애프터 서비스 등 다방면에서 혁신을 거듭합니다. 또한 IWC는 아이들과 청년들을 지원하는 다양한 글로벌 기관과도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운로드

이미지는 press.iwc.com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프레스 문의

IWC 샤프하우젠

Public Relations department

이메일 press-iwc@iwc.com

웹사이트 press.iwc.com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 iwc.com

Facebook facebook.com/IWCWatches

YouTube youtube.com/iwcwatches

Twitter twitter.com/iwc

LinkedIn linkedin.com/company/iwc-schaffhausen

Instagram instagram.com/iwcwatches

Pinterest pinterest.com/iwcwatches